

팩트체크의 현재와 자동화한 팩트체크

편견 없는 '완벽한' 팩트체크를 위하여

오세욱 /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내가 군대 있을 때 말이야, 축구만 하면 날아다녔어. 한 게임에 3~4골은 거뜬히 넣었다니까! 특히, 그 비 오던 날의 기억은 잊을 수 없어...”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면 자리에 참석한 남자들 중 꼭 한 명은 이런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곧바로 동석한 이들의 자기 자랑이 이어지고 누가 더 잘했나를 주제로 서로 근거를 제시한다. 논쟁은 치열해지지만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상대방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군대에서 게임당 3~4골은 넣었다는 ‘팩트’ 자체가 존재하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의 기본은 팩트의 전달이다. 뉴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즉 팩트를 보도의 틀에 맞도록 재구성한 이야기다. 지금까지 뉴스의 대부분은 기자라는 전문 직업층이 뉴스 가치에 따라 선택한 팩트를 기반으로 구성한 이야기였다. 팩트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야기로서 뉴스를 믿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뉴스가 너무 많다. 뭘 봐야 할지 모를 정도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팩트가 그만큼 많아진 것인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일 뿐인지 알 수 없다. 또 뉴스가 전하는 팩트가 많아지는 만큼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 많은 팩트, 누가 검증할까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이 팩트라는 판단은 누가 할까?



사진 문이 열린 채 달리고 있는 1호선 전동열차. (사진 출처-다음 아고라)

[사진1]을 예로 들어 보자. 문이 열린 채 달리는 전동열차를 촬영한 [사진1]은 2010년 1월 5일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최초 게시 당시 한파로 인해 얼어붙은 전동열차의 문이 닫히지 않은 채 운행됐다는 설명이 있었다. 이 사진이 공개됐을 때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면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운행사인 코레일이 팩트임을 확인하고 사과하면서 모두가 진실로 받아들였다. 팩트임에도 팩트라고 믿어지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렇듯 팩트라는 것은 불완전하다. 사실 팩트는 완전히 객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팩트는 객관을 전제로 한 정확성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믿는다’가 아니라 ‘증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사진으로 증명했음에도 [사진1]은 의심받았다. 증명됐더라도 일반적인 믿음에 어긋나면 팩트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학계가

검증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사실, 객관적인 통계 수치 등은 일반적으로 팩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과학적 사실은 새로운 발견에 의해 무너질 수 있으며, 통계는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때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팩트를 전달한다. 그 당시에는 팩트라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진1]의 사례처럼 그 믿음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전달되는 팩트의 양이 적을 때에는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검증이 비교적 쉬웠다. 여럿이 집중해 검증할 수 있는 양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생산되는 뉴스의 양이 수만 건을 넘는다. 수만 건이 모두 다른 팩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달되는 팩트의 양도 늘어나고 있다. 뉴스를 수용하는 특정 개인이 팩트 여부를 일일이 검증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나 많은 양이다. 뉴스 기사 작성과는 별도로 전달하는 팩트의 진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Fact Checking)’ 모델이 등장한 이유다. 팩트체크이란 비허구적(Non-Fictional) 텍스트에 포함된 사실적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행위로, 텍스트 작성 후 배포 및 발간 이전에 이뤄지거나 발간 및 배포 이후에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팩트체크’는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공식적 발언, 기자회견, 보도자료, 강연 등의 내용, 신문과 방송의 보도 내용,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발언 내용 등을 대상으로 팩트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미국의 폴리팩트(politifact.com), 팩트체크(factcheck.org), 더팩트체커(The Fact Checker) 등과 우리나라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모델 대부분은 소수 전문 기자들이 일일이 과거 기록을 찾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소수 전문화된 인력만으로는 수없이 전달되는 팩트를 모두 검증할 수 없다. 검증의 대상으로

일부 팩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선택의 과정에 팩트와는 어울리지 않는 편견이 개입된다. 검증의 대상이 되는 팩트를 선정하는 것부터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퓨터에 의한 ‘자동 팩트체크’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클레임버스터(ClaimBuster)’, 구글의 ‘지식금고(Knowledge Vault)’,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의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팩트마타 프로젝트(Factmata Project)’ ‘팩트마인더(Fact Minder)’ ‘FiB’ 등이다.

자동 팩트체크 모델 미국 텍사스대학교 듀크대학, 스탠퍼드대학 연구진과 구글 리서치팀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클레임버스터’는 팩트체크가 필요한 문장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클레임버스터는 과거 정치인들의 토론문, 발언, 기사 등으로부터 2만여 개의 문장을 선정한 다음 전문가 226명이 이 문장들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째, 사실이 아닌 문장(Non-Factual Sentence)으로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은 주관적 주장이 담긴 문장이다. 둘째, 중요하지 않은 사실 문장(Unimportant Factual Sentence)으로 너무 객관적인 내용이라 높은 수준의 팩트체크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말한다. 셋째, 검증 가치가 있는 사실 문장(Check-worthy Factual Sen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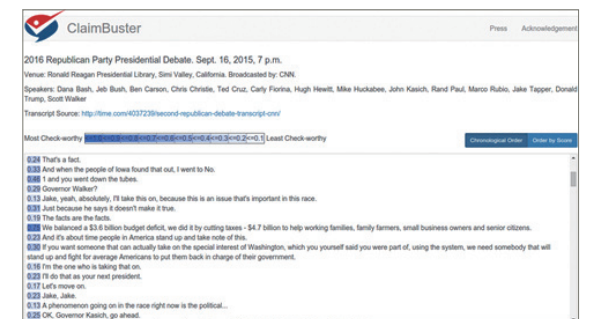


사진2 클레임버스터가 문장별로 팩트 확인 필요성을 판정한 화면. (사진 출처-http://dir-server2.uta.edu/claimbuster/event/11/)

으로 진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팩트체킹이 필요한 문장을 말한다. 연구팀은 검증 가치가 있는 사실 문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0과 1 사이의 수로 신뢰도를 매기게 한 후 그 결과를 기계가 학습하도록 했다. 이후 새로운 텍스트 문장이 입력되면 이 내용을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는지를 [사진2]처럼 0에서 1 사이의 수로 자동으로 표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클레임버스터는 팩트체킹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클레임버스터의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문장별 팩트를 확인해야 하는 주체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구글의 ‘지식금고’는 팩트체킹봇이라고 이름 붙여진 웹 수집기(Crawler)를 통해 웹 문서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인물, 기관, 장소, 주요 통계 수치 등 개체명을 인식하고 색인 과정을 거쳐 수집한 각 개체들 간의 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팩트를 생성한다. 생성된 팩트를 기반으로 해 다른 정보 간의 관계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팩트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만들어 낸 팩트를 모은 것이 구글의 지식 금고다. 구글은 2014년 기준 16억 개의 팩트 문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2억7,000만여 개의 팩트는 90% 이상의 신뢰도를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다.³ ‘지식그래프’는 인디애나주립대의 복잡계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구 센터(Center for Complex Networks and Systems Research) 연구진이 만든 것으로 사실에 대한 문장(Factual Statement)을 입력하면 이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점수로 제시한다.⁴ 연구팀은 위키피디아 각 페이지(Article)의 링크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지식 그래프를 생성한 다음 팩트체킹이 필요한 문장이 입력됐을 때 A와 B를 지식 그래프에서 찾아 최단 거리를 측정했다. 이때 거리가 짧으면 A와 B가 연관성이 있고 가까운 개념이라고 해석해 이 문장은 사실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반대로 거리가 멀면 A와 B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먼 개념이라고 해석해 이 문장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진3 'FiB' 플러그인을 설치한 크롬 브라우저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할 경우 포스트의 신뢰성 여부에 따라 포스트 상단에 'verified', 또는 'not verified' 메시지가 표시된다. 포스트에 내용을 작성할 때 진위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내용이 하이라이트 처리된다(오른쪽).⁵
 (사진 출처-<https://www.washingtonpost.com/news/inspired-life/wp/2016/11/18/fake-news-on-facebook-is-a-real-problem-these-college-students-came-up-with-a-fix/>)

“
 소수 인력만으로는 수없이 전달되는
 팩트를 모두 검증할 수 없다.
 검증의 대상으로 일부 팩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선택의 과정에 편견이 개입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컴퓨터에 의한
 ‘자동 팩트체킹’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

구글이 공식 후원하는 ‘팩트마타’⁶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기계 지능을 통해 새로 등장한 뉴스와 정치적 발언이 팩트인지를 자동으로 확인한다. 이들은 먼저 팩트체킹이 필요한 문장을 선별한 후 그 문장의 내용을 과거 텍스트, 통계 수치 등과 비교해 팩트인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웹 브라우저인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 방식으로 작동하는 ‘팩트마인더’⁷는 팩트마타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다만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웹 페이지를 보는 동안 실시간으로 해당 내용의 팩트 여부를 알 수 있게 한다. ‘FiB’⁸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사진3]처럼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나타나는 콘텐츠의 신뢰성 여부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포스트를 작성할 때 확인되지 않은(Unverified) 정보가 포함될 경우 챗봇을 통해 이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기록된 팩트만
 확인 가능** 지금까지 소개한 자동화된
 팩트체킹 사례들의 공통점이자

한계는 디지털화된 기록을 추적해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할 뿐 새로운 내용이 팩트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된 팩트가 다시 등장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기록된 팩트를 유추할 수 있을 경우에만 팩트 체크가 가능한 것이다. 과거 누군가가 군대 축구에서 맹활약했다는 기록되지 않은 팩트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처음으로 등장한 팩트에 대해서도 팩트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즉, 디지털로 기록되어 있는 과거를 현재와 비교해 분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페이크 뉴스 사이트”⁹일 정도로 팩트 자체는 상대적이다. ‘페이크 뉴스’ 사이트를 식별해 내기 어려운 이유다. 팩트는 아직까지 수학 공식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동화된 팩트체킹은 수많은 내용 중 어떤 내용을 팩트체킹해야 하는지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과거 데이터 탐색을 빠르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팩트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

- 1 https://en.wikipedia.org/wiki/Fact_checking
- 2 <http://idir-server2.uta.edu/claimbuster/>
- 3 <https://www.newscientist.com/article/mg22329832-700-google-fact-checking-bots-build-vast-knowledge-bank/>
- 4 Ciampaglia, G. L., Shiralkar, P., Rocha, L. M., Bollen, J., Menczer, F., & Flammini, A. (2015). Computational Fact Checking from Knowledge Networks. PLoS ONE, 10(6), 1-13.
- 5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inspired-life/wp/2016/11/18/fake-news-on-facebook-is-a-real-problem-these-college-students-came-up-with-a-fix/>
- 6 <http://factmata.com/>
- 7 <https://lahdak.lri.fr/?q=content/factminder>
- 8 <https://devpost.com/software/fib>
- 9 <https://fivethirtyeight.com/features/fact-checking-wont-save-us-from-fake-news/>